



학회장 임기를 마치며

세계경제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 많았던 2012년이 지나가고 201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곧 1년간의 학회장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한국경제학회의 2012년은 뜻 깊은 한 해로 기억 될 것입니다. 우선, 한국경제학회의 영문 학술지인 *The Korean Economic Review*가 SSCI에 등재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전임 학회장님들, 그리고 편집위원 및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학연구와 경제학문헌연보 등 학술지 역시 편집위원 및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수고 덕분에 훌륭한 논문들로 주어진 시기에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은 1952년 설립된 우리 학회의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2년 6월 20일 ~ 21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 15차 국제학술대회(주제: Prospects for the Future : Shaping New Approaches and Issues in Economics)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의 Christopher Sims 교수의 기조강연을 포함한 국내외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여하여, 90개가 넘는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와, 김황식 국무총리의 참석으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학회장으로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등에 회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당국, 정책연구소,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2012년 한국 경제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 주요 기관들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추진함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며, 학계와 연구소간의 소통 및 공동연구의 시발점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 경제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한해 동안 우리 경제의 중요한 쟁점인 국민연금, 재정, 공공기관, 경제민주화, 부채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 기관들과 함께 개최했습니다.

3월에 ‘국민연금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한국경제의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 세미나의 연장선 상에서 복지정책의 대안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세미나가 열린 시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정치권에서 제시된 다양한 복지정책과 연금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연구재단 SSK 과제팀이 공동주최하고 OECD Korean center 사회정책본부의 협찬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양일간 열린 본 학술대회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공정성과 복지국가’ (Fairness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Age of Aging)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복지정책의 문제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른 공정성, 동반 성장에 대해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다학제적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공정성과 복지사회에 관한 이론적 담론뿐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7월에는 기획재정부의 후원 아래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기업학회와 함께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학계와 공공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부채, 민영화 정책에 대해 학술적인 고찰 및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0월에는 한해 동안 한국 경제를 달군 경제민주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경제민주화-어떻게 할 것인가?’의 제목으로 열린 이 세미나는 한국경제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사회적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립과 경제민주화가 의미하는 우리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정계, 정책당국, 언론기관, 정부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학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입체적이며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11월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와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반복되는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감독체계의 재편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국경제학회는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체계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체계 기능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및 전반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으로 이어진 본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 또 향후 10년을 이끌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부채와 한국경제-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채구조와 금융안정, 가계부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부채, 고령화, 주택시장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의 방해물로 여겨지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조망과,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러한 여러 세미나에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 연구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한국경제학회는 2012년도 청람상 수상자와 제 1회 신태환 학술상을 시상하였고,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서 개최된 미국사회과학연합회(ASSA) Annual Meeting에 참석하였으며, KDI와 함께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를 개최하고,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한국경제학회를 이끌게 됩니다. 차기 학회장께서 유럽 경제 관련 학회와 교류를 힘쓰겠다고 밝히신 만큼, 2013년에도 한국경제학회는 세계경제에서 그 위상을 높일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유럽 경제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유럽의 경제위기로 시작된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한국경제학회의 2012년 학회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 여러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를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13년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경제학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회 회원님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빌며 한국경제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 1.

한국경제학회 회장 이 만 우